



개성 앞세운 '연변 커피'... 도시 명함장으로 급부상

— 관광산업과 융합되며 지역 경제 진흥에 한몫

연변 커피 산업 승격의 길은 관광산업의 융합과 갈라놓을 수 없다. '커피+N'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연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삼커피, 누룽지커피, 사과배커피 등 '특별메뉴'와 꽃떡, 화과자, 정과 등 민속향이 다분한 전통 디저트들이 실사없이 번갈아 손님상에 오르며 인증샷 세례를 받는다.



연변을 다녀간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연길'이 새겨져있는 종이컵을 들고 인증샷을 남겼을 것이다. 상주인구가 68만명인 연길시에는 1,000여개 점포를 웃도는 커피숍들이 운영중인 데 '매 만명당 커피숍 보유량'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상해의 4배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된다.

연길시는 지난해 연속 두달 동안 전국 현성(현급시 포함) 커피 소비 선호도 1위를 차지하면서 커피는 이미 연길 현지인들에게 도시의 명함이자 '도시의 자부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 하여도 연길시에서는 500여곳의 커피숍이 새롭게 오픈했고 2023년 연길시 커피 판매량은 동기 대비 증가폭이 104%를 초과하면서 커피의 산업과 경제 진흥에 한몫 톡톡히 보탬다.

커피산업 승격의 길은 관광산업의 융합과 갈라놓을 수 없다. 현재 연변에는 '커피+민속', '커피+문화', '커피+푸드', '커피+미식' 등 다양한 '커피 케미'들이 우후죽순마냥 생겨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 연길수상시장 근처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커피+N' 연변 원소가 가득 차넘치는 '연변 커피'는 과연 어떠한 매력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을까?

빠른 대체와 혁신에는 부득불 도태도 뒤따르는 법, 그러려면 '개성'은 더없이 중요하다. 연변은 현재 '개성'을 앞세운 커피숍이 대세다.

커피숍 안에 돌담길을 만들고 민속원을 방불케 하는, 유유한 저대소리가 흐르는 고풍적 민속원 풍의 커피숍이 있는가 하면 북창으로 된 대형 현대 공업풍 커피숍도 있다. 실외 공간을 활용한 야외 커피숍도 연길 곳곳에서 크게 인기다. 주로 연길 시가지에 마련된 야외 커피숍들은 옥수청산을 병풍으로 산수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어 관광객과 현지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아담한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디지털 커피숍이 있는가 하면 배달 전문 커피숍들도 연길의 구석구석까지 배포되어 그 어떤 곳이든 편리하게 커피를 주문할 수 있어 연길을 찾으면 그야말로 '커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길에는 다양한 소비자 군체를 위한 커피숍들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커피숍이 있는가 하면 로인고객층을 위주로 한 통소소리가 흘러나오는 실버타운 커피숍도 있고 애완동물이 잔디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에 애견인들을 위한 애견 커피숍이 있는가 하면 손님이 직접 바리스타로 변신하는 체험형 커피숍도 있어 여러가지 고객 수요를 다양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적어도 백걸음마다 커피숍 간판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마다 예쁜 예술글씨 간판들로 말이죠. 젊음의 활력 넘치는 이런 도시 분위기 너무 좋아요."

관광객 손녀사는 연변의 커피숍 문화에 크게 놀랐다고 하면서 연길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의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왕흥벽에서도, 발전 언덕길에서도, 연길의 핫플레이스마다에서 '연길 커피'를 들고 인증샷을 남겼단다.

고품질과 '공간 어필'을 앞세운 커피숍들 사이에서도 커피는 변신을 거듭하며 연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메뉴'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다.

연변의 특산인 사과배로 만든 연변 사과배커피는 본지방 특산품인 사과배를 주원료로 하였는데 수분이 많고 당도가 적당해 단맛으로 커피의 쓴맛을 커버하며 상큼한 향을 뿜어낸다. 또 다른 막걸리의 향긋한 짬뽕과 커피의 짙은 구수한 맛이 잘 어우러져 한모금 마시면 입안 한가득 감칠맛이 나는 막걸리커피도 이곳 연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커피다. 그런가 하면 홍삼을 알갱이로 갈아 원두와 함께

추출한 홍삼라떼는 류행과 웰빙을 동시에 잘 버무려낸 색다른 메뉴로 인기몰이중이다.

이 밖에도 연길에는 인삼커피, 누룽지커피, 오곡커피 등 이색 커피와 오미자, 도라지, 령지, 민들레 등 이색적인 양생차와 곁들여 먹는,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꽃떡, 화과자, 정과 등 민속향이 다분한 전통 디저트들이 실사없이 번갈아 손님상에 오르며 인증샷 세례를 받는다.

커피와 연변의 전통 특색이 잘 결합되어 탄생한 연변 특유의 '커피 케미', 커피문화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또 어떤 민속커피문화의 탄생을 이어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 김영화기자



길림성 2024년 대학졸업생공익초빙회 장춘서

—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
— 1,746개 기업 2.2만개 일터 제공

13일, '창업분투는 길림에서'를 주제로 한 '2024년 대학졸업생공익초빙회'가 장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교육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인재교류개발센터 등 대학교 졸업생 취업지도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초빙회에 734개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1,012개 기업이 온라인으로 초빙을 진행해 총 2.2만개 일터를 제공했다. 이중 훈통강, 료녕과 내몽골 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관련 지도자들이 36개의 기업을 이끌고 이번 초빙회에 참가해 1,900여개에 달하는 좋은 일터를 제공했다.

2만여개 일터중 기능제조 기업이 7,742개의 일터를, 새 서비스, 새 전자상거래 기업이 6,947개의 일터를, 국유기업이 1,596개의 일터를 제공했는데 로보트디버전지니어(机器人调试工程师), 소프트웨어엔지니어(软件工程师) 등 고수입 일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장춘농촌상업은행주식유한회사와 길림구대농촌상업은행주식유한회사의 초빙 관련 책임자는 "이번 초빙회에서는 과거 종이리서를 받던 데로 부터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온라인 신청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구직자는 QR 코드(二维码) 스캔후 회사의 초빙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회사 심사가 끝난 후 구직자에게 면접 여부를 알린다. 이는 초빙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표했다.

초빙회 현장을 찾은 장춘전자과학기술대학교 기계학과 4학년 김모씨 학생은 "학교의 통일적인 조직으로 학우들과 함께 이번 초빙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취업 긴장감이 많이 완화되

었다."며 이번 초빙회에서 마음에 드는 일터를 찾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연변마이(摩尔)개발훈련유한회사의 초빙 관련 책임자 손녀사는 "저희 회사는 현장 초빙회에 참가하지 못한들에게 각 영역의 일터를 제공하고 있다. 실습 일터도 포함되어있으니 대학생들이 연변, 훈춘을 찾아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길림대경제대학 국제무역학과 장모씨 학생은 "지금 3학년인데 실습 일터를 찾으려고 참가했다. 졸업하기 전 업무경험을 많이 쌓고 전업 능력을 튼튼히 다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초빙회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길림성의 만억급(万亿)

급) 대규모 농업, 만억급 대규모 장비, 만억급 대규모 관광, 천억급 빅데이터 '4대 집권'을 중심으로 신에너지, 신소재, 신건강양생, 신서비스 및 신전자상거래 '6신산업'의 발전 목표를 둘러싸고 일터를 설정했다. 둘째, 대학교 동문회와 교우(校友)들이 창설한 기업 초빙구역을 설립해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시범 효과를 공하였다. 셋째, 길림성내의 영향력이 있고 양성 기능이 있는 대학생창업단지 초빙구역을 설립해 창업 소원이 있는 졸업생들에게 문의와 창업 지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넷째, 초빙 일터의 실습 일터가 준비되어 대학생들이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대학교 운영 특색과 취업 발전 방향을 결합, 학교와 기업간 교류를 강화해 취업 정보의 장벽을 허물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오프라인 초빙회 현장을 찾은 구직자는 7,300여명, 온라인 초빙회에 참가한 구직자는 1만 2,000여명에 달했다.

/ 손맹번기자

1분기 전 성 대외무역 수출입 '좋은 출발' 실현

— 성장 속도 전국 제 5 위

2024년 길림성의 대외무역은 랑호한 출발을 했다.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길림성의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424억 1,000만원으로 동기 대비 15.5% 성장하여 '좋은 출발'을 했으며 수출입 성장 속도는 전국에서 제 5위를 차지했다. 그중 수출액은 13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고 수입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

길림성이 대외무역 수출입 성장에서 강세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주요하게 아무다 완성차와 부품 수입 및 자체 브랜드 완성차 수출 그리고 대 로씨야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의 빠른 성장에 힘입은 것이며 기업이 '해외진출'로 새로운 고객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고 길림성상무청 대외무역발전처 처장 성충이 말했다.

올해초부터 길림성상무청에서는 성당위와 성정부의 정책 결정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찰실시하고 상무 '1435' 프로젝트를 긴밀히 둘러싸고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전 성 대외무역의 유력한 출발을 실현하였다. 대외무역 운행의 분배배치를 강화하였다. 전 성 대외무역사업회의를 소집하고 대외무역 사업 요점을 제정, 인쇄발부하여 대외무역의 돌파성 목표와 임무를 시와 주, 처와 판공실로 계량와 분배하여 책임을 다지고 임무를 락착했다. 중점기업 연계 제도와 대외무역 운행배치 기제를 구축하고 순별배치, 월별통보와 운행 감시측정 분석을 강화했으며 '1대1' 주척서비스를 잘하였다.

국제시장 개척 력량을 강화하였다. 기업들이 상무부의 국가별 무역 지침과 대외무역 촉진 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대외무역 출국단 계획을 제정하고 기업을 이끌고 유럽연합, 중동과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 중점 국가별 시장을 개척하였다. '수련세계 길품출해'(数链全球 吉品出海) 계열 다국간전자상거래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훈춘시를 지도하여 '시장구매 + 다국간전자상거래' 업무 모식을 전개하였다. 기업들을 조직하여 광주교역박람회, 중국-월남 박람회, 중로 박람회 등 전문 전시회를 개최하고 훈춘도로통상구 차량 검사 통로를 2개에서 4개로 증축하여 차량 통행률을 50% 높이게 된다. 로씨야측을 조통하여 일간 출입국 차량의 통행 수량을 지금의 95대에서 200대로 증가하고 통상구의 통관 능력과 검사 효률을 30% 이상 제고시키게 된다.

국제시장 개척 력량을 강화하였다. 기업들이 상무부의 국가별 무역 지침과 대외무역 촉진 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대외무역 출국단 계획을 제정하고 기업을 이끌고 유럽연합, 중동과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 중점 국가별 시장을 개척하였다. '수련세계 길품출해'(数链全球 吉品出海) 계열 다국간전자상거래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훈춘시를 지도하여 '시장구매 + 다국간전자상거래' 업무 모식을 전개하였다. 기업들을 조직하여 광주교역박람회, 중국-월남 박람회, 중로 박람회 등 전문 전시회를 개최하고 훈춘도로통상구 차량 검사 통로를 2개에서 4개로 증축하여 차량 통행률을 50% 높이게 된다. 로씨야측을 조통하여 일간 출입국 차량의 통행 수량을 지금의 95대에서 200대로 증가하고 통상구의 통관 능력과 검사 효률을 30% 이상 제고시키게 된다.

/ 길림일보

'길자호' 제 4 회 중국국제소비박람회에 집중적으로 선보여

13일 해남성 해구시에서 막을 올린 제 4 회 중국국제소비박람회에서 길림성전시단은 집중적으로 '신, 기, 특'의 '길자호' 소비 정품을 선보였다.

길림성전시단은 '길자호' 소비 정품의 '나가기'를 추진하고자 이번 소비박람회 기간 '길품 즐기기, 길림을 만나다' 주제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한다. 전시구를 창의적으로 장식하고 '길랑', '길주', '길품', '길진', '길특' 5개 부분을 둘러싸고 독특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신용이 우수한 명기업 30개를 선발하여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현장에서 제 1 자동차 브랜드 자동차, 길림임업, 길림 옥수수, 백주, 포도주, 광천수, 인삼, 사슴제품, 진귀식품 등을 포함한 길림성의 우수한 제품을 전시하

고 전문적으로 전통 명가 브랜드 잔장, 무형문화재 랑근목조(浪根木雕) 등 생산기업을 초청하여 전시회에 참가하게 하였다.

길림성상무청 시장운행과 소비품 촉진처 처장 진희택의 소개에 따르면 소비박람회 기간에 길림성전시단은 '개방 기회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창조하자'는 대회의 주제를 실천하고 일련의 공식 활동에 참가하게 되며 길림의 구미상 탐, 중점기업 등을 역점적 전시구역에 초청하여 참가상들과 소형화 생산 판매 업무 매칭을 전개하고 무역거래를 확대하며 소비박람회 큰 플랫폼을 빌어 세계에 룽색길림, 건강길림, 디지털길림, 이채로운 길림을 충분히 보여주게 된다.

/ 길림일보